

고흥군, 동강면 '신승호·김은영 부부' 새농민상 수상

스마트팜 기반 고품질 딸기 생산·지역사회 공헌 인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동강면에 거주하는 신승호·김은영 부부가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승호·김은영 부부는 수도작과 딸기 시설하우스를 경영하며 지역 농업의 소득 다변화와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 기반의 과학영농을 도입해 고품질 딸기 생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부는 스마트팜 설비를 활용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일하고 안전한 딸기를 생산하는 데 주력했으며, 지하수를 활용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재배 기간 연장에 1헥타르당 생산량

을 약 2배 향상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농가소득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흥 딸기 공산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규모화된 농산물 판매 체계 구축과 병해충 정보 공유 등 영농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업 활동 외에도 두 사람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신승호·김은영 부부는 지역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동강지부에서 회장단을 맡아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귀농·귀촌 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멘토 활동을 수행하는 등 기술 전파와 농촌사회 활력 제고에 이바지



이들 부부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품질 딸기 생산에 힘쓰고 있다. 이번 새농민상 수상은 지역 농업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의 선도 농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화순군,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60명 졸업생, 배움의 결실 맺고 새로운 도전 시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60명의 졸업생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장기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한우과와 신규농업인과 2개 과정을 개설해 전문 농업 기술은 물론, 농기계·농작업 안전교육, 디지털 리더러시 등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신규농업인과는 재배 기초 이론부터 퍼미컬처, 세무 세법 등 실용적인 내용을 교육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지향적인 농업 경영 능력을 함양하였다.

스마트한우과는 전남대학교 축산교육원 및 나주 축산공과대학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과 한우 사육 과정에 ICT 기술

을 접목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축산 경영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정각 장애인 교육생을 위해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는 등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화순군농업인대학은 2008년 개설 이후 18년간 37개 학과에서 총 1,2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화순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류장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18기 농업인대학은 스마트 기술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업 경영 능력을 함양하였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 희망의 물길 열다

미안마 고마다 사원서 열린 식수 우물 준공식서 세계신기록 달성

광양시는 시 홍보대사이자 국제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지난 11월 13일 미안마 고마다 사원(Gomada Temple)에서 열린 식수 우물 준공식에 초청돼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5시간 30분을 기록하며 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깊이 1,000m의 식수 우물은 총 2,2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완공됐으며, 이 중 조승환 씨가 ㈜진행위터웨이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모델료 1,70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인화 광양시장 ▲가수 김다현 ▲박향진 호원종합병

원 이사장 ▲정규성 양평축산농협 조합장 ▲김기윤 판다팜 회장 ▲이성현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이명렬 동광사우 대표 ▲이은영 은영씨의꽃피는바다 대표 ▲이병노 가인농원 대표 ▲방승인 노민 ▲양평군 소재 옥복사 등 여러 인사와 단체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불안정한 상수도 시설로 식수가 부족한 미안마에서, 이번 우물 조성은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제환경운동가로



활약 중인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 씨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과제 속에서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광양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실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함평군, 노인대학 졸업식 성료... 배움으로 행복한 노년

3월부터 9개월간 노력 결실... 졸업생 44명 배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제44기 노인대학이 9개월간의 배움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활기찬 노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14일 "제44기 노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어르신 졸업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함평군 노인대학(학장 이진행)은 (사)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지회장 조용무)가 지역 어르신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교양, 건강관리,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3월 개강한 제44기 노인대학은 지난 한 해 동안 배움의 열정을 이어온 어르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로, 노인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조용무 (사)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졸업생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배움을 향한 열정이 여



증서 및 표창 수여, 졸업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근상에는 박옥순 외 14명의 졸업생이, 공로상에는 김봉수·박효심 졸업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배움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며 "배움의 결실을 통해 더욱 보람찬 여생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고 존중받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군 봉산면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에 밀반찬 나눔 봉사

담양군 봉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원 24명이 참여해 배추김치와 장조림, 김자반무침, 알감자조림 등 네 가지 반찬을 직접 조리해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조리엔 힘을 보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반찬을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은 반찬을 만들기 쉽지 않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큰 도움이 된다"며 "머질은 든든하게 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두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밀반찬 나눔을 이어오며 관내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